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에 적조주의보 발표에 따른 위기경보 상향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9일(금) 14시부터 기존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적조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기준 : 적조주의보 2개 해역 이상(혹은 적조경보 1개 해역 이상)

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8월 9일(금) 14시부터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신규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8월 8일 진행한 적조예찰 결과, 득량만에서 최초 발생한 적조생물이 전남 남해안 주변해역과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미량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 (적조주의보)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예비특보)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 여자만, 가막만,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적조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반(반장 : 수산정책실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장 현장지도 및 황토 살포 등 방제활동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전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특보* 해역에 적조생물이 관찰된 만큼 수산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적조 예찰 및 방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부족에 대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남 고수온 특보 : (경보)득량만, 여자만, 도암만 등, (주의보)고흥 거금도~통영 욕지도 등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사무관	조효종 (044-200-5622)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연구사	박태규 (051-720-2261)

